

논문 17

청소년의 취업준비행동 및 진로기대 분석 - 취업 청소년을 중심으로 -

이 제 경* · 이 승 구**

요약

최근 우리나라는 교육정책 및 환경의 변화 등으로 대학 진학률이 82.1%(2005년)로 급속히 증가하여 OECD 국가 내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여건의 변화 속에서 비진학으로 취업을 선택한 청소년들은 취업과정과 진로선택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2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취업 청소년 573명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이 자신의 취업준비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구체적인 행동 즉, ‘취업준비행동’ 과 취업청소년이 대학 진학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계획여부 및 진학예상시기로서의 ‘진로기대’ 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 청소년의 직업정보 수집은 주로 ‘아는 사람을 통한 취업부탁’ 이 가장 많으며, 취업준비과정으로는 ‘자격증 취득’ 에 가장 역점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직업정보수집 방법에 따라 ‘취업한 직장의 규모’ 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취업을 위한 준비과정별로 직장의 규모를 분석한 결과 면접훈련을 받은 사람의 39.3%가 1,000인 이상의 기업에 취업하여 취업준비과정에서 면접훈련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취업 청소년의 고용형태별로는 상용직의 63.3%, 비상용직의 48.8%가 진학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가구 월평균 소득이 299만원이하의 서민층 보다는 300만원이상의 중상층인 취업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진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취업 청소년의 진학예상 시기와 관련하여 가구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이하의 저소득층인 경우에도 무려 31.9%가 1년 이내에 진학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사회의 학력주의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대학에 진학하지 않거나 대학중퇴인 고졸 취업 청소년의 52.2%가 대학진학을 계획하고 있으며, 40% 이상이 1년 이내에 진학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진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업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직업 및 진로지도 지원체계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 취업준비행동, 진로기대, 취업청소년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교수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박사과정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진로란 한 개인이 생애전반에 걸쳐 일과 관련한 모든 경험과 활동을 의미하며, 한 개인이 선택한 직업을 포함하여 일과 관련된 태도, 동기, 행동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김계현, 1997; Crites, 1981; Gysbers & Moore, 1971). 청소년기는 이러한 진로를 준비하고 이루어나가는 중요한 시기이다. 청소년기에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개인의 생애를 통해 가장 중요한 과업 가운데 하나이며(이정근, 1988; 조아미, 2000), 어떤 진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사회·경제적 지위, 가치관과 태도, 교우관계, 정신 및 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받게 된다(Torbert, 1980; 김영태 1992).

최근 세계적으로 저출산·고령화의 경향에 따라 학령인구¹⁾가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Durkheim, 1897),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해를 거듭할수록 높은 진학률과 지나친 학벌주의로 인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정영섭, 2002; 김동훈, 2002). 통계청(2006)의 2005년 현재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진학률²⁾을 살펴보면, 10년 전인 1995년과 비교하여 중학교 졸업자의 고등학교 평균 진학률은 98.5%(여자 98.4%)에서 99.7%(여자 99.8%)로 1.2%p 증가하였으며,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 평균 진학률은 51.4%(여자 49.8%)에서 82.1%(80.8%)로 무려 30.7%p나 대폭 증가³⁾ 하였다. 이처럼 높은 대학 진학률은 OECD 선진국(2003년 기준) 내에서도 미국 83%, 일본 51%, 프랑스 56%, 독일 51%, 영국 64%에 비교하여 상당히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다(OECD, 2005). 이처럼 점점 높아만 가는 대학 진학률은 과거 진학률이 비교적 높지 않았던 시절과는 달리 대학 비진학청소년과 취업한 청소년들의 향후 진로기대에 여러 가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봉환 외, 2000; Greenberg 외 1986).

2005년의 경우 전국 고등학교 졸업자 569,272명 중 대학(2년제 포함)진학자는 467,508명(82.1%)이며, 비진학자 101,764명 중 취업자는 52,852명(비진학자의 51.9%)으로 나타나고 있으며(한국교육개발원, 2006), 최근 2001~2003년 동안 학교부적응, 가사 등으로 학교를 떠난 매년 약 4~5만명씩의 중등학생⁴⁾ 들 중 상당수 역시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불완전 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통계청(2004) 자료에 따르면 대졸이상 실업률은

1)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의 학생인구로서 6~21까지를 말하며, 1995년 11,918천명에서 2005년에는 10,537천명으로 1,381명이 감소하였다. 이는 학령인구가 가장 많았던 1980년(14,401천명)에 비하면 26.8%(3,864명) 감소한 것이다.

2) 진학률 = (상급학교 진학자수 / 졸업생 수) × 100, 기타학교 진학이 포함한다. 진학률은 당해연도의 졸업생을 대상으로 상급학교 진학자의 비율을 조사하는 것으로 중도탈락 학생은 통계에서 제외

3) 대학진학률의 급속한 증가추세로 말미암아 산업계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설립된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대학진학률이 1995년 19.2%에서 2005년 67.6%로 무려 약 3.5배나 대폭 증가하여 실업교육의 총체적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업계 고교의 대학진학률 증가의 주요원인은 2004년부터 실업계학생의 동일계 대학으로 진학시, 정원의 3% 범위 안에서의 특별전형이 시행되었기 때문으로, 고급인력이 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의 교육욕구와 대졸자들의 하향취업, 학벌주의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한겨레신문, 2005.4.4일자)

4) 휴학생을 제외한 중등학교 중퇴자 수는 2003년 56,261명, 2002년 51,424명, 2001년 39,320명으로 매년 증가추세이며, 전체 중등학교 재학생수와 비교하여 2003년 3,765,814명(1.49%), 2002년 3,636,539명(1.41%), 2001년 3,597,681명(1.09%)에 이르고 있다.

8.9%인데 비해 고졸 실업률은 11.0%, 중졸이하(고졸 중퇴자 포함) 실업률은 13.2%로 높게 나타나 고졸이하 청소년들이 취업에 상대적으로 많은 어려움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비진학·취업청소년들은 현실적으로 정규직 취업에 대한 어려움과 대졸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수준, ‘학력 콤플렉스(Complex)로 인한 자기계발의 필요성 증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재학 중인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체계적인 진로 및 직업지도가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국가의 관심부족으로 인해 별도의 예산과 전담인력의 부족으로 기본적인 통계조사 및 교육전달체계가 미비하여 비진학·취업 청소년의 진로문제는 대부분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는 안타까운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정준교, 2001; 청소년 대화의 광장, 1995; 민혜리, 2002; Hirschman, 1970). 그러나 우리사회가 학력이외의 별 다른 능력평가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선택한 취업 청소년들이 직장생활에 잘 적응하고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건전한 직업가치관 교육과 개인의 흥미·적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진로 및 경력개발 모델을 제시해 주지 않는다면, 취업청소년들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학벌주의 분위기에 편승하여 합리적인 진로계획 보다는 진학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되어 학력과잉 → 고학력 실업자 양산 → 생산·기능인력 부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어려울 것이다(김진우, 2006; 민혜리, 2003).

그동안 취업청소년의 직업 및 진로분야에 관한 연구는 주로 고등학교 비진학 및 중도탈락 청소년에 대한 내용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최근의 대학 진학패턴과 추세를 반영하여 고졸 취업 청소년의 취업과 진로분야에 대한 연구는 아직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윤식현, 1998). 그리고 비진학·취업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 역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2005년도 「한국교육고용패널」(Korea Education & Employment Panel : KEEP) 2차년도 자료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연구자료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간과되어 온 비진학·취업청소년들의 진로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선행연구를 조사·분석하고, 취업 중인 고졸청소년의 취업준비행동(직업정보수집방법 및 획득경로, 취업준비과정에 따른 일자리와의 관련성)과 진로기대(가정환경요인과 진학계획 및 진학예상시기)를 분석하여 취업청소년의 진로 및 직업상담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가. 연구문제

먼저 본 연구에서는 “취업준비행동”을 진로준비행동에서의 보다 장기적이고 전반적인 진로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측면에서 당면한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5) 그동안 언론 및 방송 등에서 대졸 고학력 청년실업난에 초점을 두어 보도를 많이 하는 경향으로 인해 고졸 청소년들의 취업난이 다소 소홀하게 다루어진 점이 있었다.

위한 행동(정보검색, 회사선택 과정,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갖추어야 할 자격 등)(이제경, 2004)으로서, 고졸 및 대학을 중퇴한 취업청소년(이하 취업청소년)이 취업을 위해서 행하는 일련의 구체적 행동이라고 보았다. 즉, 직업정보의 수집과정과 획득경로, 취업준비과정을 말한다. 또한, “진로기대”란 진로와 관련하여 앞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것으로, 진로에 대한 개인의 가치관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한국교육개발원, 1989; 신덕자, 1988). 여기서는 취업청소년이 대학 진학을 위해 가지고 있는 계획여부 및 진학예상시기로 한정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취업청소년의 직업정보 수집방법 및 획득경로(인터넷 활용, 고용지원센터 방문 및 상담활동, 채용박람회 참여, 민간취업알선기관 이용경험 등)는 현 일자리의 특성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
2. 취업청소년의 취업준비과정(직업훈련 참여, 자격증 취득, 면접훈련, 직업심리검사 실시 등)은 현 일자리의 특성과 관련성이 있는가?
3. 가정환경요인(고용형태, 월 평균 소득 등)에 따라 취업청소년의 진학계획에 차이가 있는가?
4. 가정환경요인(고용형태, 월 평균 소득 등)에 따라 취업청소년의 진학예상시기에 차이가 있는가?

나. 연구대상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2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취업 청소년 573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취업청소년의 학력은 고졸이 547명(95.5%)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중퇴는 26명(4.5%)으로 나타났다.

<표 1> 취업청소년의 학력분포

(단위: 명, %)		
학력	빈도	백분율
고졸	547	95.5
대학중퇴	26	4.5
계	573	100

분석방법은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2차년도 자료 중 취업청소년 자료를 바탕으로 SPSSWIN 10.1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t-검정, 카이스퀘어 검정(Chi-square) 등을 이용하였다.

다.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2차년도 자료에 국한하여 고등학교 졸업자 및 대학 중퇴 청소년 중 취업청소년만을 연구대상으로 한정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전체 취업청소년의 일반적인 결과로 일반화 하는 데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3. 이론적 배경

가. 취업준비행동 관련 선행연구

취업청소년들에 대한 ‘취업준비행동’ 및 ‘진로기대’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대학생, 중도 탈락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취업준비행동’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이제경(2004), 김재원(2003), 전병유 외(2003), 장민규(2002)가 대표적 인데, 이제경(2004), 김재원(2003)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취업준비행동에서 취업준비시기(4학년, 1~3학년)와 준비과정(면접, 구직 및 취업을 위해 주당 투자한 시간 등)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결과를 제시한 것이 특징이며, 전병유(2003)는 고등학생 졸업생을 장민규(2002)는 고등학교 재학생 및 검정고시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전병유(2002)는 학력별 구직경로(직업소개소, 취직시험, 연고채용 등)와 학력별 근로조건(상용, 임시, 일용, 자영업 등)을 구분하여 구직경로를 제시하여 취업준비행동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장민규(2002)는 고등학교 재학생과 검정고시생을 그룹으로 나누어 진로정보 수집방법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선행연구들은 모두 고졸 취업자의 취업을 위한 준비과정(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면접훈련 등)과 직업정보 수집방법(인터넷 지원, 취업정보검색 등)의 차이에 따른 현 직장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

선행연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이제경(2006)은 우리나라의 서울과 지방에 소재한 18개 대학의 3,4학년 대학생과 기업체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3학년 초, 4학년 초, 취업직전 3개월 동안의 취업준비행동을 조사하였다. 2004년 3월 15일~3월 29일까지 본 연구를 위한 자료를 수집(총표집 인원: 1,024명)하였으며 자기보고식 검사를 통하여 취업준비과정에서 찾아보았던 정보의 특성, 정보소스, 예비적/본격적 취업준비행동, 취업준비강도 등을 측정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생의 취업준비행동은 시기에 따른 발달적 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3학년 초, 4학년 초, 취업직전의 순으로 시기가 변화함에 따라 공식적/비공식적 정보의 활용, 취업준비행동 전체, 예비적 취업준비행동, 본격적인 취업준비행동, 취업준비 강도(시간과 노력)등 모든 면에서 점차 점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학생의 취업준비행동이 심리적 특성(직업탐색 자기효능감, 취업성공에 대한 통제성, 특성불안, 내외향성) 및 개인배경변인(성별, 대학의 소재지, 단과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탐색 자기효능감의 경우 정보소스, 취업준비행동 총점, 예비적 취업준비행동과 본격적 취업준비행동, 취업준비 강도 모두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인배경변인에 있어서는 성별과 단과대에 따라 구직과정 중에 찾아본 정보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대학의 소재지에 따른 차이는 없으므로 나타났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보수, 회사명성, 직업안정성, 후생복지에 대해서 더 많이 찾아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적성 및 흥미일치도와 구직정보 및 입사조건은 여학생이 더 많이 찾아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예비적 취업준비와 본격적 취업준비행동을 살펴보면 성별, 대학의 소재지, 단과대별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리적 특성에 따른 취업준비행동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직업탐색 자기효능감, 특성불안, 내외향성에 따라 취업준비행동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이나 취업담당 센터에서는 성별이나 취업준비행동 시기, 단과대의 특성에 따른 취업준비과정의 고유한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에 적합한 개입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김재원(2003)의 연구에서는 2002년 9월에 한양대학교 학생 290명(남 167명, 여 123명)을 대상으로 대학생들의 졸업 후의 진로, 취업준비 및 근로의욕을 조사하였는데 졸업 후의 진로는 회사취업 44.1%, 국내 대학원 16.0%, 자격증 취득 12.5%, 유학 10.8%, 자영업 5.2%, 기타 11.5%로 나타나 취업과 자영업의 비중이 49.3%로 절반이하인 반면 진학(국내 대학원, 유학)이 26.8%나 차지하여 대조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취업준비행동(면접, Job Search, 이력서 작성)을 항목별로 준비수준을 살펴보면, ‘충분한 준비’와 ‘다소준비’를 합쳐서 ‘면접’이 전체 26.3%, ‘Job Search’가 43.9%, ‘이력서 작성’이 26.9%로 나타나 대부분의 학생들의 구체적인 취업준비가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4학년의 경우에는 남·여학생을 분리하여 조사하였는데, ‘면접’의 경우 남학생이 36.7%, 여학생이 36.8%, ‘Job Search’는 남학생 69.3%, 여학생 44.7%, ‘이력서 작성’은 남학생 51.0%, 여학생 36.8%로 나타나, 4학년 2학기에도 취업준비가 불충분한 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생들의 취업률 증대를 위해 가정, 학교, 사회에서 신세대들에게 일과 직업의 세계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전병유 외(2003)의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1998년 1월~2002년 2월) 자료를 중심으로 청년층 실업자의 ‘구직경로’를 분석하였는데, 고졸계층은 ‘친구·친지’ 등 연고에 의한 취업이 대졸이나 전문대졸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졸계층의 첫 일자리 특성은 임시·일용직 및 단시간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으로 고졸 일반계의 경우 첫 직장이 상용직인 경우가 겨우 8%대에 머무르고 있어 대졸의 36.8%, 전문대졸의 44.4%에 비해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한 정책대안으로는 고졸 미진학 청년층의 고용·실업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는 제도적 지원을 제시하고 있다.

장민규(2002)는 성남시의 일반계 고등학교 및 검정고시 준비생 각각 200명을 대상으로 총 400명에게 설문조사(진로, 직업관 등)를 실시한 결과, 검정고시생의 주 상담대상은 학원·과외교사였으며, 일반학생은 부모와 담임교사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선택에 필요한 정보획득방법은 검정고시생은 학원교사와 친구가 많은데 비해 일반학생은 부모와 인터넷이

더 많은 것으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직업관에서는 두 집단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비진학, 취업 청소년들이 체계적인 진로지도를 받을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검정고시 학원 등에서 청소년에 대한 지도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나. 진로기대 관련 선행연구

‘진로기대’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윤식현(1998), 박혜석(2004), 표갑수(2003), 황창순(1996), 구본용 외(2002), 박혜석(2004)가 대표적 인데, 박혜석(2004)의 대학졸업 구직자를 제외하고 모두 고등학교 졸업자와 중도탈락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윤식현(1998), 황창순(1996), 구본용 외(2002)의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요인분석(개인적, 환경적, 학생의 직업기대 및 선호, 자녀의 최종학력에 대한 부모의 교육적 수준, 부모-자녀 관계)을 통해 ‘직업 및 진로기대’의 인과관계를 제시하고 있으며, 박혜석(2004)의 연구에서는 구직활동기간별로 집단을 구분하여 직장기대수준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들 선행연구들 역시 모두 연구대상에서 고졸 취업청소년이 제외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윤식현(1998)의 연구에서는 김해지역 남·여 고등학생(2학년) 579명을 대상으로 ‘직업기대’ 관련 연구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문항구성은 ① 개인적 요인(성별, 과정, 성취도, 적성, 흥미, 성격, 가치관, 신체적 조건)과 ② 환경적 요인(거주지역, 부모의 학력, 부모의 직업, 부모의 소득, 부모의 직업기대, 부모의 가치관), ③ 학생의 직업기대 및 선호로 크게 분류하였다. 연구결과 고등학생들의 직업기대 경향은 기술자, 교육자(교수 및 교육전문가 포함), 회사원, 공무원(법조인 포함), 상업종사자(사업가 포함)등을 원하고 있었고, 그 이유로는 적성과 흥미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개인적 요인 중 성별, 과정(일반계, 실업계), 성적은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적성, 흥미, 성격, 가치관은 세부 항목별로 차이가 있었다. 환경적 요인에서는 거주지역을 제외하고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어 특징적이며, ‘학생의 직업기대 및 선호’는 대체로 학생들이 생각할 때 인기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직업 쪽으로 직업기대를 가지는 경향이 있으며, 직업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뚜렷한 이유가 없이 그저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갑수(1993)의 연구에서는 청주지역 600명(중퇴자 200명, 재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통한 면접조사(중퇴요인)를 실시하였는데, 진로기대 관련 항목을 살펴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의 기회가 오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에 학교중퇴자 집단과 학교재학생 집단이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1.0% 대 15.0%, 그리고 ‘아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6.0% 대 32.3%로 각각 2배의 차이를 보였으며($P < .005$), ‘나는 삶의 목표를 세워서 노력할 필요가 없다’에 대한 질문에는 학교중퇴자 집단과 학교재학생 집단이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0.4% 대 8.6%, 그리고 ‘아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62.8% 대 32.3%로, ‘그럴 수도 있다’에 응답한 비율은 26.8% 대 18.8%로 나타났다($p < .000$). 연구결과 학교중퇴자 집단

은 학교재학생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로의지가 부족하고 진로계획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직업교육, 취업정보제공 및 취업정보제공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구본용 외(2002)의 연구에서는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중도탈락 학생 291명과 재학생 37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면접(대면, 전화)을 통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연구결과 중학생의 경우 중퇴 유무를 가장 잘 변별해 주는 변인은 자녀의 최종학력에 대한 부모의 교육적 수준이었으며, 어울리는 또래들에 대한 교사의 평가, 결석이나 지각으로 인한 수업결손의 변인이 중퇴생과 재학생을 구분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남자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최종학력에 대한 기대수준이, 여학생의 경우에는 부모-자녀관계가 중퇴생과 재학생을 변별하는 가장 강력한 변인으로 조사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학교에서 중퇴위험성이 높은 학생들을 사전에 변별하고(Leithwood & Jantzi, 2000), 예방하기 위한 자료를 통계적으로 제시한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박혜석(2004)의 연구에서는 2003년 5월~11월까지 광주지역을 대상으로 대학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구직자 164명(남 82명, 여 82명)을 대상으로 취업준비기간이 10개월 이하(113명)와 15개월 이상(51명)인 집단으로 구분하여 직장기대 수준을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구직자들은 가상의 취업시점이 길어짐에 따라 직장기대 수준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는데, 남자는 가상의 취업시점이 늘어나면 직장기대 수준이 감소하는 변화를 나타내었으나 여자는 의미 있는 변화가 없었다. 아울러 구직자들이 보인 직장 기대수준의 변화 또는 불변의 이유는 취업준비투자에 대한 보상, 취업기회감소, 취업실패에 따른 정서적 문제 등이었다.

황창순(1996)의 연구에서는 주로 중퇴 현황과 원인에 대한 이론연구로서 청소년의 학업중퇴 주요원인으로 가정문제, 학교문제, 친구유혹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정, 학교, 개인적 요인, 사회적 지지망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대안으로는 지역사회복지관이나 봉사센터를 활용하여 청소년들에게 ‘진로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여 지역사회 비진학 청소년을 위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조력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4. 연구결과

가. 직업정보 수집방법 및 획득경로와 현 일자리의 특성

취업청소년들의 직업정보수집 방법과 관련하여 <표 2>에서 보는바와 같이 취업청소년들은 주로 “아는 사람을 통한 취업부탁”(58.2%)과 “취업정보검색”(57.4%)을 통해 직업정보를 검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청소년들이 인터넷 등 사이버 환경에 친숙한 점을 잘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 2〉 직업정보 수집과정

(단위: 명, %)

직업정보 수집방법	계	활용 여부	
		예	아니오
인터넷 지원	251(100)	23(9.2)	228(90.8)
취업정보검색	251(100)	144(57.4)	107(42.6)
아는사람 취업부탁	251(100)	146(58.2)	105(41.8)
일자리를 방문하여 취업부탁	251(100)	82(32.7)	169(67.3)
취업박람회	251(100)	25(10.0)	226(90.0)
고용지원센터	251(100)	4(1.6)	247(98.4)
시설취업알선기관	251(100)	16(6.4)	235(93.6)

취업청소년들의 취업을 위한 준비과정으로는 〈표 3〉에서 보는바와 같이 자격증 취득(42.6%)이 가장 많았으며, 이는 청소년들이 신규입사의 경우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적합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직업적성이나 흥미검사(22.3%)에 대한 준비가 면접훈련(18.3%)이나 직업훈련(16.7%)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최근 기업들이 면접을 보면서 직무적성검사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표 3〉 취업을 위한 준비과정

(단위: 명, %)

취업 준비과정	계	활용 여부	
		예	아니오
직업훈련	251(100)	42(16.7)	209(83.3)
자격증취득	251(100)	107(42.6)	144(57.4)
면접훈련	251(100)	46(18.3)	205(81.7)
직업적성, 흥미검사	251(100)	56(22.3)	195(77.7)

취업청소년들의 직업정보 수집방법에 따른 직장의 분류형태를 살펴보면 〈표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4〉 직업정보 수집과정에 따른 직장의 분류형태

(단위: 명, %)

직업정보 수집방법	활용 여부	민간회사, 개인사업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공사	법인단체	정부기관	χ^2
	아니오	84(67.7)	3(2.4)	35(28.2)	2(1.6)	
취업정보검색	예	38(65.5)	2(3.4)	16(27.6)	2(3.4)	3.717
	아니오	57(73.1)	1(1.3)	20(25.6)	0(0.0)	
아는사람 취업부탁	예	54(72.0)	2(2.7)	18(24.0)	1(1.3)	.678
	아니오	41(67.2)	1(1.6)	18(29.5)	1(1.6)	
일자리를 방문하여 취업부탁	예	32(84.2)	1(2.6)	5(13.2)	0(0.0)	5.906
	아니오	63(64.3)	2(2.0)	31(31.6)	2(2.0)	
취업박람회	예	6(42.9)	0(0.0)	8(57.1)	0(0.0)	7.749
	아니오	89(73.0)	3(2.5)	28(23.0)	2(1.6)	
고용지원센터	예	1(33.3)	0(0.0)	2(66.7)	0(0.0)	2.571
	아니오	94(70.7)	3(2.3)	34(25.6)	2(1.5)	
시설취업알선기관	예	9(81.8)	0(0.0)	2(18.2)	0(0.0)	.996
	아니오	86(68.8)	3(2.4)	34(27.2)	2(1.6)	

직업정보 수집방법에 따른 직장의 규모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5>에서 보는바와 같이 방문취업 부탁여부($p < .05$), 취업박람회 참석여부($p < .01$), 고용지원센터 상담여부($p < .05$)에 따른 직장의 규모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 취업부탁한 사람의 40.0%는 10인 이하 규모의 직장, 취업박람회 참석한 사람의 57.1%는 1000인 이상 규모의 직장, 고용지원센터 상담한 사람의 66.7%는 11~49인 규모의 직장에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취업 부탁의 경우에는 주로 소규모 기업에서 추천이나 연고채용이 많은 것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으며, 고용지원센터는 주요 이용구인업체가 50인 이하의 중소기업이 많은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채용박람회는 이용인원이 적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표 5> 직업정보 수집방법에 따른 직장의 규모

(단위: 명, %)

직업정보 수집방법	활용 여부	근로자 수					χ^2
		10인 이하	11~49인	50인~299인	300인~999인	1,000인 이상	
인터넷 지원	예	7(58.3)	1(8.3)	1(8.3)	2(16.7)	1(8.3)	4.650
	아니오	55(44.4)	25(20.2)	15(12.1)	6(4.8)	23(18.5)	
취업정보 검색	예	34(43.6)	17(21.8)	8(10.3)	6(7.7)	13(16.7)	2.318
	아니오	28(48.3)	9(15.5)	8(13.8)	2(3.4)	11(19.0)	
아는사람 취업부탁	예	30(40.0)	18(24.0)	7(9.3)	6(8.0)	14(18.7)	5.444
	아니오	32(52.5)	8(13.1)	9(14.8)	2(3.3)	10(16.4)	
일자리를 방문하여 취업부탁	예	23(60.5)	9(23.7)	2(5.3)	0(0.0)	4(10.5)	9.668*
	아니오	39(39.8)	17(17.3)	14(14.3)	8(8.2)	20(20.4)	
취업박람회	예	3(21.4)	2(14.3)	0(0.0)	1(7.1)	8(57.1)	17.862**
	아니오	59(48.4)	24(19.7)	16(13.1)	7(5.7)	16(13.1)	
고용안정 센터	예	0(0.0)	2(66.7)	0(0.0)	1(33.3)	0(0.0)	9.858*
	아니오	62(46.6)	24(18.0)	16(12.0)	7(5.3)	24(18.0)	
사설취업 알선기관	예	4(36.4)	2(18.2)	2(18.2)	1(9.1)	2(18.2)	.996
	아니오	58(46.4)	24(19.2)	14(11.2)	7(5.6)	22(17.6)	

* $p < .05$, ** $p < .01$

직업정보 수집방법에 따른 임금체불 경험여부를 분석한 결과 <표 6>에서 보는바와 같이 방문 취업 부탁여부($p < .05$)에 따른 임금체불 경험 여부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를 방문하여 취업 부탁’을 한 사람의 7.9%가 임금체불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는 사람을 통한 취업부탁의 경우 10인 이하의 영세기업이 많은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 된다.

〈표 6〉 직업정보 수집방법에 따른 임금 체불 경험 여부

(단위: 명, %)

직업정보 수집방법	활용 여부	예	아니오	χ^2
인터넷 지원	예	0(0.0)	12(100.0)	.399
	아니오	4(3.2)	120(96.8)	
취업정보검색	예	2(2.6)	76(97.4)	.091
	아니오	2(3.4)	56(96.6)	
아는사람 취업부탁	예	3(4.0)	72(96.0)	.657
	아니오	1(1.6)	60(98.4)	
일자리를 방문하여 취업부탁	예	3(7.9)	35(92.1)	4.533*
	아니오	1(1.0)	97(99.0)	
취업박람회	예	0(0.0)	14(100.0)	.473
	아니오	4(3.3)	118(96.7)	
고용지원센터	예	0(0.0)	3(100.0)	.093
	아니오	4(3.0)	129(97.0)	
시설취업알선기관	예	0(0.0)	11(100.0)	.363
	아니오	4(3.2)	121(96.8)	

* $p < .05$

직업정보 수집방법에 따른 일(업무)에 대한 만족도(5점 척도)를 분석한 결과 〈표 7〉에서 보는바와 같이 고용지원센터 상담 여부에 따른 일에 대한 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14 < .05$). 고용지원센터 상담을 받은 사람의 만족도는 2.00으로 상담을 받지 않은 사람의 3.21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직업정보 수집방법에 따른 일(업무)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

직업정보 수집방법	활용방법	M	SD	t
인터넷 지원	예	3.33	1.07	-.640
	아니오	3.17	0.82	
취업정보검색	예	3.14	0.82	.684
	아니오	3.24	0.89	
아는사람 취업부탁	예	3.20	0.81	-.247
	아니오	3.16	0.90	
방문취업부탁	예	3.21	0.88	-.229
	아니오	3.17	0.84	
취업박람회	예	3.21	0.80	-.142
	아니오	3.18	0.85	
고용지원센터	예	2.00	1.00	2.501*
	아니오	3.21	0.83	
시설취업알선기관	예	3.00	0.78	.751
	아니오	3.20	0.85	

* $p < .05$

나. 취업준비과정과 현 일자리의 특성

취업을 위한 준비과정에 따른 일(업무)에 대한 평가(5점 척도)를 살펴보면 <표 8>에서 보는바와 같이 자격증 취득 여부에 따른 일에 대한 평가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20 < .05$).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의 일에 대한 평가는 2.53으로 취득하지 않은 사람의 2.1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청소년들이 자격증 취득을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취업에 대한 준비를 통하여 업무에 쉽게 적응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8> 취업준비과정에 따른 일(업무)에 대한 평가

		(단위: 명, %)		
취업준비과정	활용방법	M	SD	t
직업훈련	예	2.20	0.89	.731
	아니오	2.37	0.94	
자격증취득	예	2.53	0.95	-2.351*
	아니오	2.16	0.89	
면접훈련	예	2.46	0.88	-.787
	아니오	2.31	0.95	
직업적성, 흥미검사	예	2.47	1.07	-.838
	아니오	2.30	0.89	

* $p < .05$

취업을 위한 준비행동에 따른 직장의 규모 차이를 분석한 결과, 면접훈련 여부($p < .001$)에 따른 직장의 규모는 <표 9>에서 보는바와 같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접훈련을 받은 사람의 39.3%는 근로자 수 1,000인 이상 규모의 직장에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대기업 일수록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면접전형이 복잡하여 면접훈련의 영향이 반영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9> 취업을 위한 준비행동에 따른 직장의 규모

		(단위: 명, %)					χ^2
취업준비과정	활용방법	근로자 수					
		10인 이하	11~49인	50인~ 299인	300인~ 999인	1,000인 이상	
직업훈련	예	12(57.1)	3(14.3)	1(4.8)	1(4.8)	4(19.0)	2.146
	아니오	50(43.5)	23(20.0)	15(13.0)	7(6.1)	20(17.4)	
자격증취득	예	27(40.3)	13(19.4)	8(11.9)	4(6.0)	15(22.4)	2.503
	아니오	35(50.7)	13(18.8)	8(11.6)	4(5.8)	9(13.0)	
면접훈련	예	6(21.4)	2(7.1)	4(14.3)	5(17.9)	11(39.3)	25.300***
	아니오	56(51.9)	24(22.2)	12(11.1)	3(2.8)	13(12.0)	
직업적성, 흥미검사	예	14(45.2)	6(19.4)	4(12.9)	3(9.7)	4(12.9)	1.542
	아니오	48(45.7)	20(19.0)	12(11.4)	5(4.8)	20(19.0)	

*** $p < .001$

다. 취업청소년의 가정환경요인에 따른 진학계획

취업 청소년들의 대학진학계획 여부와 관련하여 <표 10>에서 보는바와 같이 298명(52.2%)이 '예'라고 대답하였으며, '아니오'라고 대답한 273명(47.8%)을 대상으로 '대학을 진학하지 않은 주요이유'를 묻는 질문에서는 '돈을 벌고 싶어서(35.5%)', '가정의 경제적 형편으로(18.7%)'순으로 경제적 목적이 응답자의 54.2%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취업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 10> 대학진학 계획여부 및 진학하지 않은 이유

문항		구분	빈도	백분율
대학진학계획여부		예	298	52.2
		아니오	273	47.8
계			571	100
대학진학을 하지 않은 이유	사회생활을 일찍 경험하고 싶어서		45	16.5
	대학에 진학할 실력이 안 되어서		8	2.9
	가정의 경제적 형편으로		51	18.7
	공부하기 싫어서		13	4.8
	대학을 나와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50	18.3
	돈을 벌고 싶어서		97	35.5
	기타		9	3.3
계			273	100

가정환경에 따른 취업청소년의 진학계획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11>에서 보는바와 같이 고용형태(p=.037<.05), 가구소득(p=.009<.01)에 따른 진학계획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직임금근로자의 63.3%, 비상용직임금근로자의 48.8%, 자영업의 47.2%는 진학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사회의 학력위주 경향을 말해주고 있으며, 취업청소년들이 일을 하면서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신의 미래를 위해 진학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11> 가정환경에 따른 진학 계획

항목	구분	진학계획 유무		χ^2
		예	아니오	
수입 유무	예	192(53.8)	165(46.2)	.485
	아니오	36(49.3)	37(50.7)	
고용 형태	상용직임금근로자	69(63.3)	40(36.7)	8.496*
	비상용직임금근로자	40(48.8)	42(51.2)	
	기타	15(65.2)	8(34.8)	
	자영업	68(47.2)	76(52.8)	
가구 소득	100만원미만	69(42.9)	92(57.1)	11.532**
	100~199만원	91(55.8)	72(44.2)	
	200~299만원	50(52.6)	45(47.4)	
	300만원이상	40(66.7)	20(33.3)	

* p< .05, ** p< .01

라. 취업청소년의 가정환경요인에 따른 진학예상시기

가정환경에 따른 진학 예상시기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구소득에 따른 진학 예상 시기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9 < .01$).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진학예상 시기는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소득이 높을수록 진학시기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은 정부의 학자금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학진학에서 학비에 대한 부담이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12> 가정환경에 따른 진학 예상시기

항목	구분	진학예상 시기		χ^2
		1년 이내	2년 이후	
수입 유무	예	88(45.8)	104(54.2)	.591
	아니오	14(38.9)	22(61.1)	
고용 형태	상용직임금근로자	33(47.8)	36(52.2)	3.559
	비상용직임금근로자	16(40.0)	24(60.0)	
	기타	10(66.7)	5(33.3)	
	자영업	29(42.6)	39(57.4)	
가구 소득	100만원미만	22(31.9)	47(68.1)	11.606**
	100~199만원	37(40.7)	54(59.3)	
	200~299만원	21(42.0)	29(58.0)	
	300만원이상	26(65.0)	14(35.0)	

** $p < .01$

5. 논의 및 제언

가. 논의

먼저 취업청소년의 취업준비행동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 청소년의 직업정보 수집은 주로 ‘아는 사람을 통한 취업부탁’이 가장 많으며, ‘고용지원센터’를 이용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는 사람을 통한 취업부탁’은 우리사회에서 인맥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구직 네트워크 형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며, ‘고용지원센터’의 비중이 낮은 것은 취업청소년들에 대한 홍보부족과 근무시간의 제약으로 인한 것이 많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취업청소년을 위해 주말이나 야간에도 근무시간을 연장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면 이용률을 많이 증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취업을 위한 준비과정으로는 자격증 취득의 비중이 가장 많은 반면, 직업훈련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는 직업훈련의 대부분이 고용보험에 의한 실업자직업훈련

으로 이루어져 청소년들이 훈련에 대한 기회가 적으며, 훈련기간 동안 별도의 정부지원이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직업훈련을 기피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의 시기에는 직업훈련을 통해 기능을 습득하는 것이 개인적인 직업생활에 유리하므로 비진학청소년을 위한 훈련과정개설을 확대하고, 훈련기간 동안 최저생활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직업훈련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취업을 위한 준비과정별로 직장의 규모를 분석한 결과 면접훈련을 받은 사람의 39.3%가 1,000인 이상의 기업에 취업하여, 취업준비과정에서 면접훈련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에서 면접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취업 청소년을 위한 면접특강이나 온라인 면접강좌의 개발이 요청된다.

그리고 취업청소년의 ‘진로기대’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 청소년의 고용형태별로는 상용직이 비상용직에 비해 더 높은 진학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가구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취업청소년들이 진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신분이 안정적인 고졸 상용직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적은 중산층이상의 가정에서 대학진학 계획이 더 높은 것은 우려할 만한 사실로 중장기적으로 산업체의 기능·생산인력의 부족을 초래하여 심각한 인력난을 예고하는 것으로 취업청소년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취업 청소년의 진학예상 시기와 관련하여 가구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이하의 저소득층인 경우에도 무려 31.9%가 1년 이내에 진학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사회의 학벌주의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향후 취업청소년의 진학에 따른 저소득층 가정의 가계부담의 증가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기업과 정부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한 기업연계 학자금지원 제도⁶⁾를 확대하고, 저소득층 취업청소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진로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합리적인 진로설계를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 제언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거나 대학중퇴인 고졸 취업 청소년의 52.2%가 대학진학을 계획하고 있으며, 40% 이상이 1년 이내에 진학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진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업청소년에 대해 학벌중시 경향을 해소하고 올바른 직업관을 교육하고 합리적인 진로 및 직업지도를 위해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에서는 기업주 단체와 연계하여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학벌주의를 해소할 수 있는 범정부적인 종합대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이 고졸 임금

6) 기업연계 학자금지원제도는 기업에서 재학 중인 학생의 학자금과 생활비를 지원하고, 방학 중에는 인턴사원으로 근무하며, 졸업 후에는 회사에 입사를 보증하는 형태로 우리나라에서는 일부기업에서 우수인력확보와 생산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시행 중이다.

수준⁷⁾을 100으로 할 때 전문대졸 101.2, 대졸 이상이 155.0으로 임금격차가 극심한 현실 속에서는 고졸취업자 뿐만 아니라 전문대졸 취업자까지 진학 열풍에 포함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청소년들에게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진로 및 직업선택의 필요성 자체를 무색하게 만들어 능력주의 사회와 국가발전 동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무엇보다 정부의 청소년 진로 및 직업지도 유관기관⁸⁾의 기능을 보다 확대하여 취업청소년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을 활성화 하여야 한다. 취업청소년에 대해서는 학교재학 청소년과 차별 없이 동등한 차원에서 진로 및 직업교육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취업청소년들을 위한 야간이나 주말 진로강좌를 개설하고, 야간상담 및 온라인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취업청소년들이 올바른 직업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취업청소년을 위한 상담 전담인력의 확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취업청소년들은 일반 학교의 재학청소년에 비해 학교부적응 등 여러 가지 심리적, 환경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상담 인력의 양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즉, 학교, 청소년상담실, 고용지원센터, 진로정보센터 등에 취업청소년들을 위한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7) 통계청의 「2005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2004년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의 학력별 월 평균 임금의 경우 대졸이상 근로자들이 고졸 근로자들에 비해 55.0%나 임금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8)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참고문헌

- 강신정(1999), 비진학 청소년의 진로지도와 교육대책연구 - 인문계 고교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건우(2006), 한국시민단체의 학벌주의 논의검토 : Weber 계열의 시각 원용,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계현(1997). 상담심리학. 서울 : 학지사.
- 김동훈(2002), 학벌주의, 퇴계학 연구, Vol. 16, 17-20.
- 김봉환, 김병석, 정철영(2000). 학교진로상담, 서울 : 학지사.
- 김영태(1992), 일반계 고교 비진학생의 진로지도를 위한 직업교육과정 활성화 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석(1992), 고등학교 학생들의 직업기대 관련요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재원(2003), 대학생의 취업준비 및 근로형태에 관한 연구, 직업능력개발연구, Vol 6, No. 1, 211-241.
- 구본용·신현숙·유제민(2002), 데이터마이닝을 이용한 중퇴 모형에 관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2002, Vol. 16, 17-20.
- 민혜리(2002), 대학생 취업준비 과외학습의 유형과 비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민혜리(2003), 대학졸업자 취업구조의 변화가 대학생들의 취업준비 양식변화에 미친영향, 교육비평, Vol-, No. 12, 148-182.
- 신덕자(1988), 직업가치관과 취업지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근(1988), 잔로지도의 실제, 서울 : 성원사.
- 이제경(2004), 한국대학생의 취업준비행동: 심리적 특성 및 개인배경변인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식현(1998), 진로결정요인에 따른 직업기대차이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민규(2002), 고교 비진학 및 중도탈락 청소년의 진로의식 조사연구,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병유·이상일(2003), 고졸 미진학청년층의 고용·실업현황과 정책과제, 정책과제 2003-03, 서울 : 한국노동연구원.
- 정영섭(2002), 학벌주의 타파를 위한 정부정책의 한계와 개혁방향, 사회과학연구, Vol. 15, 157-175.
- 정준교(2001), 학교문화유형, 학교조직몰입 및 학교중퇴의도의 관계, 연세경영연구 Vol. 38, No. 1, 133-168.
- 조아미(2000), 사이버 상담에 나타난 청소년의 진로문제 유형과 그 시사점. 청소년 정책연구 Vol. 1, No. 1, 326-352.
- 조아미(2001), 청소년의 직업기대와 진로결정유형, 인문과학연구논총 Vol 23, 31-142.
- 청소년대화의 광장(1995). 정부의 청소년상담정책연구. 서울 : 청소년대화의 광장.

- 통계청(2004), 2004년 「경제활동인구연보」. 대전 : 통계청.
- 통계청(2006), 2006 청소년통계, 대전 : 통계청.
- 표갑수(1993), 중·고등학생의 중퇴원인과 대책, 청소년학 연구 Vol. 1, No. 1, 127-147.
- 한국교육개발원(1989), 고등학교 진로교육 지도서,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개발원(2006).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정보시스템(<http://std.ked.re.kr>).
- 황창순(1996), 청소년 학업중퇴의 현황과 사회복지적 대책, 순천향사회과학연구 Vol. 2, No. 1, 109-133.
- Crites, J. O.(1981), *Career Counseling : Models, Methods and Materials*, New York : McGraw-Hill.
- Durkheim, E.(1897), *Suicide; A study in Sociology*. Translated by Spaulding, J.A. and Simpson, G.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Hirschman, A. O.(1970), *Exit, Voice, and Loyalty; Responses to Decline in Firms, Organizations, States*,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1970.
- Leithwood, K. D. Jantzi(2000), "The Effects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n Organizational Conditions and Student Engagement with School,"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Vol. 38, No. 2, 1999, pp. 112~129.
- Ginzberg, E.(1951). *Occupational choice: An approach to general theor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Greenberg, J., & Pyszczynski, T.(1986). Persistent high self-focus after failure and low self-focus after success: The depressive self-focusing sty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1039-1044.
- Gysbers, N. C. and Moore, E. J.(1971), "*Career Development in the Schools*" in *Contemporary Concepts in Vocational Education*, ed. G. F. Law. Washington, D. C.: American Vocational Association.
- OECE(2005), Meeting of OECD Educational Ministers, Background Report, www.oecd.org/dataoecd/30/7/36960580.pdf
- Super, D.E.(1953). A theory of vocational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8, 185-190.
- Super, D.E.(1957). *The psychology of careers*. New York: Harper & Raw.
- Torbert, E. L.,(1980), *Counseling for Career Development*, Boston: Houghton Mifflin Co. 1980

Abstract

An Analysis on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of Adolescents and Their Career Expectations - Focused on high school graduates -

Lee Je-kyung, Lee Sung-goo

HRD school of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education

Recently, due to changes in education policy and environment, the ratio of students who go on to universities is rapidly increasing to 82.1% (as of 2005) which is very high even among OECD member countries. Amid these changes in educational conditions, adolescents who choose to pursue jobs after high school are having much difficulty in choosing their career paths and getting employed. This study utilizes the second-year materials from 「Korea Education Employment Panel」(KEEP) and analyses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that the subjects of 573 high school graduates used in choosing their jobs and their career path expectations in the future. The main contents are as below.

First, they mainly gather the information about jobs from and ask a favor to acquaintances (58.2%), and concentrate on 'acquiring licenses' in preparation for employment.

Secondly, the analysis on the scale of the company according to the preparation process for employment shows that 39.3% of the subjects who have trained for a job interview get a job with the company of more than 1,000 employees leading to the conclusion that training for an interview is an important factor to get a job with a big company.

Thirdly, depending on the employment type, 63.3% of permanent employees and 48.8% of temporary employees plan to go to the university. And adolescents from the mid-upper level income family (more than 3,000,000 won) rather than those from the middle class family (less than 2,990,000 won) are more interested in going to the university.

Fourthly, as to when they plan to apply for the university, as many as 31.9% adolescents from low-level income family (less than 1,000,000 won) plan to go to the university within one year from now reflecting the tendency of diplomaism in our society.

This study shows that 52% of high school graduates or college drop outs plan to go to the university someday, and 40% of them will do within one year from now. Therefore, it is urgent to institute systematic support system of career guidance and employment for high school graduates in career dead zone.

Keywords: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career expectations, employment for high school graduates

토 론 문

「청소년의 취업준비행동 및 진로기대 분석」에 대한 토론

김 봉 환*

본 논문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 2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취업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이 자신의 취업준비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실천하는 일련의 구체적인 행동 즉, ‘취업준비행동’과 취업 청소년이 대학 진학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계획여부 및 진학 예상시기로서의 ‘진로기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네 가지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고, 타당한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문제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서 본 논문은 아직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않지만 매우 중요한 개념인 취업준비행동을 다루고 있고, 취업한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진로기대를 실증자료를 통해서 분석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토론자로서 연구자들이 가졌던 문제의식이나 연구방법 그리고 도출된 결과에 대해서 큰 이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다만, 여기에서 발표된 논문이 앞으로 보다 훌륭한 논문으로 다듬어지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 그리고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관점들을 몇 가지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인 ‘취업준비행동’과 ‘진로기대’에 대한 정의가 독자들에게 쉽게 와닿지 않거나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연구자들은 연구문제를 제시하기에 앞서서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취업준비행동’과 ‘진로준비행동’과의 차이점이 피상적인 수준에서 서술되었고, ‘취업준비행동’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설명되면 더욱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아울러 ‘진로기대’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포괄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본 연구에서는 오직 진학계획 및 진학예상시기만으로 한정된 것도 아쉬움이 남는다.

둘째, 이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대상이 청소년인데, 구체적으로 그들이 누구를 지칭하는지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어떤 곳에서는 청소년을 9세부터 24세까지의 연령에 속한 집단으로 규정하기도 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15세부터 29세까지의 연령에 속한 집단으로 규정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셋째, 연구대상을 요약한 <표 1>에서는 학력만을 기준으로 연구대상을 분류하고 있는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좀 더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관점에서 구분을 해준다면 뒤에 나오는 연구결과를 해석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직업정보 수집과정을 분석한 <표 2>의 경우 ‘인터넷 지원’, ‘아는 사람을 통한 취업 부탁’, ‘일자리를 방문하여 취업 부탁’ 등의 경우도 과연 직업정보 수집과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다소 의문이 든다. 이러한 것들은 직업정보 수집과정 이라기 보다는 ‘구직경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 때문이다.

다섯째, 직업정보 수집방법에 따른 일(업무)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 <표 7>을 보면 고용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사람의 만족도는 2.00으로 상담을 받지 않은 사람의 3.21보다 의미있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던 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설명이 필하다고 생각된다. 논의 부분에서 이 결과에 대해서 추론되는 이유라도 언급해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논의 부분의 첫 번째에서 취업 청소년의 직업정보 수집은 주로 ‘아는 사람을 통한 취업부탁’이 가장 많으며, 이는 우리사회에서 인맥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구직 네트워크 형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것이 연구자의 표현대로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혹시 연구자가 인적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였다면 독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서술상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일곱째, 연구자는 논의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신분이 안정적인 고졸 상용직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적은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 대학진학 계획이 더 높은 것은 우려할 만한 사실로 중장기적으로 산업체의 기능·생산인력의 부족을 초래하여 심각한 인력난을 예고하는 것으로 취업청소년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언급하였다. 그런데 이 서술이 올바른 지적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세심한 탐색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사한 맥락에서 대학에 진학하지 않거나 대학중퇴인 고졸 취업 청소년의 52.2%가 대학진학을 계획하고 있으며, 40% 이상이 1년 이내에 진학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진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업 청소년에 대해 학벌중시 경향을 해소하고 올바른 직업관을 교육하며 합리적인 진로 및 직업지도를 위해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서술한 부분도 동일하게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여덟째, 연구자는 취업청소년들 위해서 야간이나 주말에 진로강좌를 개설하고, 야간상담 및 온라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취업청소년들이 올바른 직업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고, 취업청소년을 위한 상담 전담인력의 확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자의 구상과 의도는 매우 좋으나 단기적인 관점에서 실현 가능한 제언도 보다 풍부하게 언급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위에서 토론자 나름대로 몇 가지 사항을 언급하였는데, 이 중에는 토론자가 연구자의 의

도를 잘못 파악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연구자의 표현이 축약적이라서 독자에게 본래의 의도를 전달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 청소년을 대상으로 ‘취업준비행동’과 ‘진로기대’를 연구한 것은 이론적 그리고 실제적 관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고, 무엇보다도 동 주제에 대한 새로운 연구의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서 연구자들이 매우 훌륭한 작업을 하였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를 출발점으로 해서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본다.